

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여성정책이슈나 다양한 여성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새롭게 개편된 <KWDI Brief>를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[#MeToo 운동 기획시리즈 2]

일반국민이 바라본 우리사회 성평등

“일반국민 10명 중 8명,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 향상이 남녀 모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”

Summary

- 일반국민 10명 중 8명 정도는 성평등 수준 향상이 남녀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것이고, 10명 중 6명 정도는 남녀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함. 미투운동에 대해 10명 중 7명이 성평등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반면, 일반국민의 절반 정도가 미투운동으로 인한 남녀 간 갈등 심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음
- 우리사회의 성평등 수준에 대해 62.0%가 “여성에게 불평등”하다고 인식함. 그러나 여성은 77.0%가, 남성은 47.6%가 “여성에게 불평등”하다고 인식하는 격차를 보임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10명 중 8명 정도는 성평등 수준 향상이 남녀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것이고, 10명 중 6명 정도는 남녀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함
-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우선정책으로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소와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의식 확산을 꼽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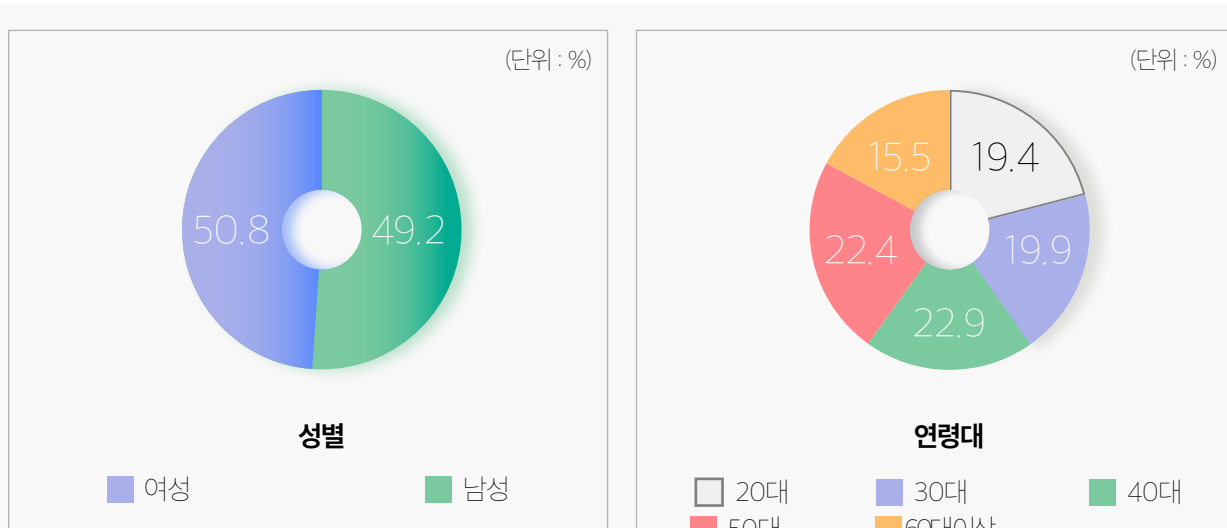
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개원 35주년을 맞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성평등 정책,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

[조사개요]

기간 : 2018.4.10. ~ 4.11.

대상 : 전국 만 19세~69세 1,013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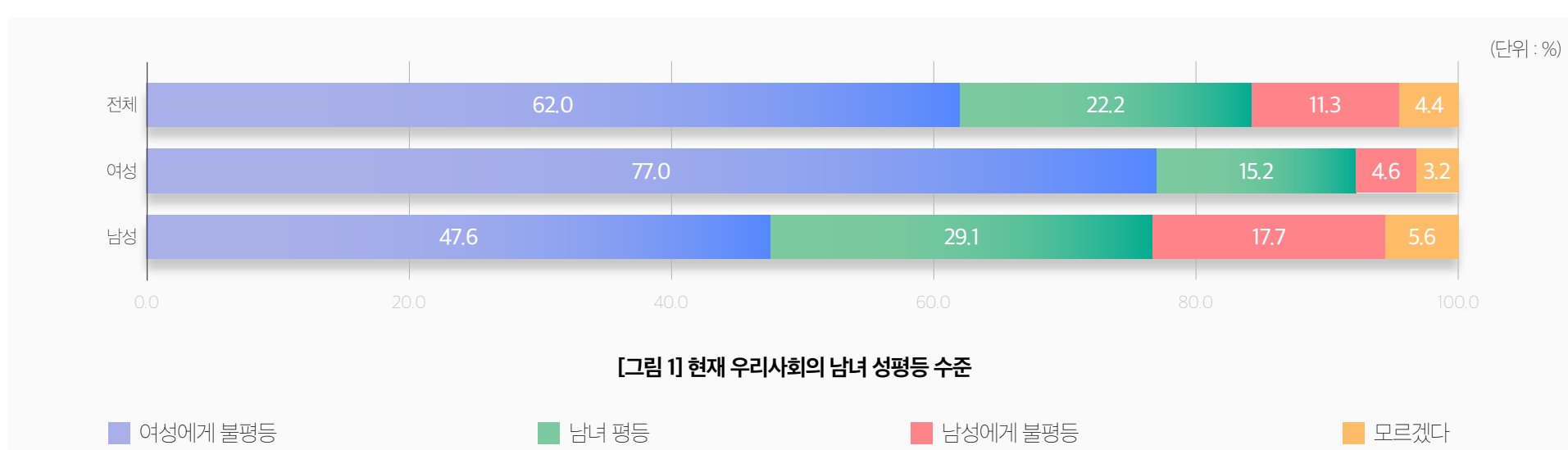
방법 : 유무선 RDD를 혼합한 전화조사



① 현재 우리사회의 남녀 성평등 수준

-우리 사회의 남성과 여성 간 평등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, 전체 중 62.0%가 “여성에게 불평등”하다고 응답했고, 22.2%는 “남녀 평등”하다고 응답함. 11.3%는 “남성에게 불평등”하다고 응답함

-우리사회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여성과 남성 간의 인식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남. 여성 응답자 중 77.0%가 “여성에게 불평등”하다고 인식하는 반면, 남성 응답자 중에서는 47.6%가 “여성에게 불평등”하다고 응답함. 또한 여성 응답자 중 15.2%가 “남녀 평등”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, 남성 응답자 중 29.1%가 “남녀 평등”하다고 보았고, 여성 응답자 중 4.6%가 “남성에게 불평등”하다고 인식하는 반면, 남성은 17.7%가 “남성에게 불평등”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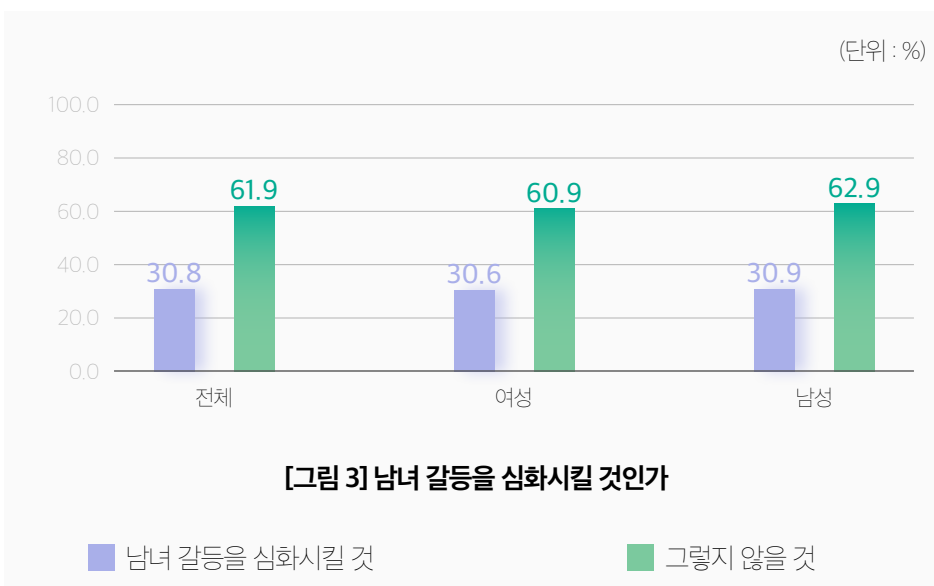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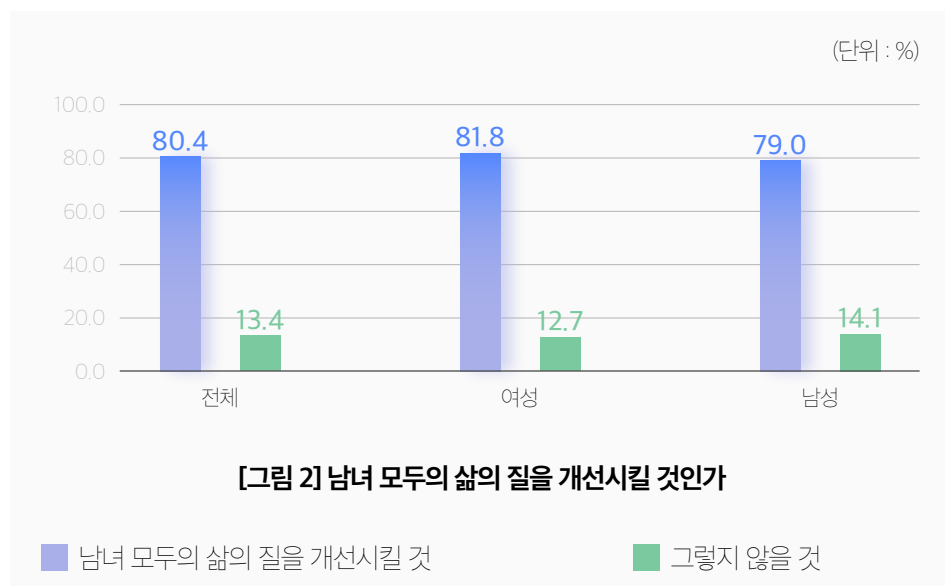
② 성평등 수준 향상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

- 남녀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것인가?

- 전체 중 80.4%가 “성평등 수준 향상이 남녀 모두의 삶을 개선시킬 것”이라고 응답함
- 여성과 남성 모두 80% 내외로 “남녀 모두의 삶의 질 개선”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

- 남녀 갈등을 심화시킬 것인가?

- 전체 중 61.9%가 “성평등 수준 향상이 남녀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을 것”이라고 응답함
- 여성과 남성 모두 60%를 상회하며 “남녀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 것”이라고 예상함



③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우선정책

-우리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해야할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, 전체 중 21.5%가 “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소”를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 응답함. 그 다음은 “가족/사회에서의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”(15.5%), “자녀, 가족 돌보는 일의 부담”(11.0%), “일과 생활의 균형”(10.5%) 순이었음

-여성의 경우, “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소”(25.1%), “가족/사회에서의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”(15.2%), “자녀, 가족 돌보는 일의 부담”(14.1%) 순이었는데, 남성의 경우 “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소”(18.0%), “가족/사회에서의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”(15.9%), “일과 생활의 균형”(11.5%) 순이었음. 여성과 남성 모두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소, 가족/사회에서의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은 동일했으나,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일-생활 균형 보다 돌봄 부담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게 나타나 가정 내 성역할 고정관념과 역할분담에 대한 변화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음

